서울 종로구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기금 국민모금

건립기금 후원계좌

농협 : 301-0211-6928-21
예금주 :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 후원금 입금 후 사무국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135-1894 **팩스 :** 02-2135-1893
이메일 : donghak01894@daum.net **홈페이지 :** www.전봉준1894.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원말안길 2, 2층 (방배동)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2017 | 겨울 | 30호

녹두꽃

녹두칼럼
배항섭 / 성균관대 교수

기획 ① 명사대담
안도현 / 시인, 우석대 교수

참여자 유족 인터뷰
심재식 / 참여자 심풍택의 증손자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기획 ② 지역대담
심형기 / 서석추모사업회 회장

유적지 탐방
강원도 홍천·강릉·평창 유적지를 찾아서

죽순(竹筍)밭에서

문병란

죽순밭에는
흥건히 고이는 울음이 흐른다
죽순밭에는
낭자히 고이는 달빛이 흐른다.

무엇인가 뽐고 싶은 가슴들이
무엇인가 뽑아올리고 싶은 욕망들이
쑥쑥 솟아오른다
도란도란 속삭인다.

– 중략 –

甲午年 白山에 솟은 푸른 참대밭
우리들의 가슴을 뚫고
사무친 아우성이 솟아오르는 소리
안개 속에서 달빛 속에서
어둠을 뚫고
굳은 땅을 뚫고
모든 뿌리들이 일제히 터져나오는 소리

죽순밭에는
뾰족뾰족 일어서는
카랑한 달빛이 흐른다
도도한 기침소리가 들린다
묵은 골텅에 새 순이 돋아
창끝보다 날카로운 아픔이 솟는다.

가슴이 막혀 답답한 날
대밭에 가서 창을 다듬자
왕대 곁에 서서
끗끗이 휘지 않는
한줄기 죽순을 뽑아올리자

음혈진 어둠을 뚫고
핏물진 연한 살을 뚫고
벌떼같이 내리는 햇살 속에서
낭자하게 내리는 달빛 속에서
아 소리 없는 아픔이 솟아오른다.

작품설명

시인은, 겨우내 시린 땅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일제히 솟구쳐 오르는 죽순 밭에서 낡은 봉건체제를 개혁하고 국권 수호를 위해 일제의 침략에 결연히 맞섰던 1894년 갑오년의 역사를 떠올린다. 굳은 땅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여리디 여린 죽순'이 '창끝보다 날카로운 죽창'으로 변하는 이치를 모순이 아니라 역설로 인식하는 시인의 눈이 매섭다.

문병란 文炳蘭

1935~2015. 전남 화순 출생. 1962년 『현대문학』에 시(詩) 「가로수」 등으로 추천이 완료되어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문병란 시집』(1971), 『정당성』(1973), 『죽순밭에서』(1977), 『땅의 연가』(1981), 『무등산』(1986), 『견우와 직녀』(1991) 등 다수가 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3.)

【편집자주】

이 코너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발표된 한국문단의 시 작품 중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한다.

목차 2017 | 겨울 | 30호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문병란 / 죽순밭에서

04 **녹두칼럼**
배항섭 / 성균관대 교수

06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회, 운영위원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워크숍

10 **기획 ① 명사대담**
안도현 / 시인, 우석대 교수

18 **참여자 유족 인터뷰**
심재식 / 참여자 심풍택의 증손자

22 **유적지 탐방**
강원도 홍천·강릉·평창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29 **기획 ② 지역대담**
심형기 / 강원도 서석동학농민군추모사업회 회장

38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41 **지역단체 포커스**

45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 동학혁명군위령탑

1894년 강원도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대 규모였던 자작고개 전적지.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800여 명이 희생되어 단일 전투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으로 얘기되고 있다.

발행일 2018년 1월 1일 | **발행인** 이승우 |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전화** 063.538.2894 |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 **홈페이지** www.1894.or.kr | **제작** 홍디자인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자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근대'에 대한 재인식

얼마 전 칼 폴라니(Karl Polanyi)라는 경제학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는 『거대한 전환』(1944)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결국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자체를 파괴하는 '악마의 맷돌'이 되어버렸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 대안으로 그가 제시한 핵심적 의제는 시장을 사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 폴라니가 신자유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재조명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주장 때문이었다.

최근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21세기 자본』에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자, 배당금, 이윤, 임대수익 등 자본으로 인한 수입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본을 소유한 자들에게 부가 더욱 더 집중되는 '세습자본주의', 곧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수준에서 각국 정부의 공조를 통한 개입, 특히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폴라니나 피케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와 '근대'를 근대이게 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게 한다. 인간들은 근대에 들어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기반으로 역사의 발전과 낙관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대량 인명살상, 환경파괴와 그것이 초래한 생태적 위기에서 보이듯 오히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류의 '발전'은 지구환경에 대한 '약탈'에 다름 아니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인간에 대한 역습을 시작한 지 오래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는 '근대'는 회의되고 있으며, '근대'를 만든 인간 이성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의심받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 '근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상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역사는 항상 새롭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역사가 언제든지 날조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해석되거나, 강조되는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발발한 지 120여 년이 지난 오늘 동학농민군은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답안은 동학농민혁명이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으며" 이후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사회의 부정부패, 그리고 외세의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규모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은 많게는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대규모의 희생자를 내며 약 1년간 지속되었다. 그러한 농민혁명이 그 미래에 대해 회의와 의심을 받을 정도로 '위험해진' '근대'를 추구했다는 점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역사이해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면 지나친 기우일까? 수많은 희생을 통해 보여준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은 '근대'를 추구했다는 것 이외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풍부하다. 동학농민군의 뜻과 희생을 슬기롭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배항섭 | 성균관대 교수, 문학박사(고려대학교, 사학, 1996),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때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30년이 넘게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힘을 기울여왔으며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선후기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2002, 경인문화사), 『19세기 민중사연구의 시각과 방법』 (2015, 성균관대출판부),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2015, 너머북스, 공저), 『日韓民衆史研究の最前線』(2015, 有志舍: 東京, 공저),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공저, 너머북스, 2017), 『근대를 상대화하는 방법』(2009), Kaesong Uprising of 1893(2010), 『19세기를 바라보는 시각』(2012), 『19세기 후반 민중운동과 公論』(2013),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 역사인식의 천망(天網)인가?」(2014),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2015), 「'근세' 동아시아의 直訴와 정치문화」(2016), 「'탈근대론'과 근대중심주의」(2016) 등 다수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년 운영위원회 및 정기 이사회 열려

12월 15일과 19일에 재단 운영위원회 및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내용, 기념일 제정,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사회에는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해철, 이기곤, 김동길, 구왕회, 김양식, 문화체육관광부 임광식 담당관, 최금주 이사 등이 참석하였고, 운영위원회에는 최효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문영식(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정호(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조광환(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신함식(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등록 재개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심사 경과

- 2016. 10. 26. 발의
- 2016. 11. 16.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
- 2016. 11. 25. 교문위 전체회의 원안의결
- 2016. 11. 30. 법사위 상정, 기재부 반대로 소위 회부(재검토)
- 2017. 11. 30. 법사위 전체회의 수정의결
- 2017. 12. 01. 국회 본회의 의결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제3조) 현행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 수행함
  - 유족등록 신청기한 종료(2007.7월)로 현행 위원회 활동 정지('09.12월)
  - 유족등록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위원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여 등록업무 계속 수행
- (제8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명시
-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명시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단체워크숍 열려

지난 2017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 대표자 및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전국화를 통해 애국애족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념사업단체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유하였다.

▣ 전국 기념사업단체 대표자 및 임원

▣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전국화 방안 토론회

"이제까지 동학을 소재로 한 여러 장르의 예술작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봉준의 일대기가 공영방송의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문은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겨울 전 국민이 촛불을 치켜들면서 우리는 정권을 교체했고, 새로운 정부는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먼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인식, 그게 역사의식을 갖는 일이지요. 새로운 이 정부에서 다시 찾게 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우리 국민의 정신으로 더 넓게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시_ 2017.10.19.(목) 13:00
장 소_ 우석대학교 교수연구실
대 담_ 안도현 | 시인,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이번 호 명사대담은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시인 안도현 교수를 만났다.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도현 시인은 시(詩) '서울로 가는 전봉준'(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1984년)으로 한국문단에 등단한 이후 문화예술분야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안도현 |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원광대 국문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첫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시작으로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바닷가 우체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간절하게 참 철없이』 『북항』등 10권의 시집을 냈다. 『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 『냠냠』 『기러기는 차갑다』 등의 동시집과 다수의 동화를 쓰기도 했으며,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는 출간 이후 100쇄를 넘겼고, 12개국의 언어로 해외에 번역 출간되었다. 최근에는 『백석평전』 『그런 일』 등의 산문을 냈다. 소월시문학상, 윤동주상, 백석문학상, 임화문학예술상 등을 받았다. 현재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주에 살고 있다.

문병학 늘상 만나던 작가회의 모임이나 술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의 명사대담 인터뷰라서 호칭을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하죠? 뭐가 좋을까요? 안 시인님, 안 선생님, 안 교수님?.... 어쨌거나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먼저 근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안도현 지금은 대학에 있습니다만 이십대 중반부터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면서 선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도현 씨'라는 말이 때로는 어색하게 들리기도 해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학교 강의하랴, 외부강연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강연 요청을 받아놓고는 금세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 년에 100군데 넘는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신세입니다. 내년부터는 강연을 대폭 줄이고 책 읽고 글 쓰는 일에 집중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문병학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하셨지요? 그 당시 동학농민혁명, 갑오년의 역사가 대중적으로는 '동학난' 혹은 '반란사건'으로 인식되던 때였지요? 시대적으로 상당히 앞선, 아니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상당히 도발적인(?) 시를 쓰셨는데... 특별한 창작동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도현 '광주'로 상징되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시를 쓰면서 제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역사 속으로'라는 화두라고 단정 지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1년 이후 5공 초기 몇 년간은 비판의 산실이라 할 대학에서도 침묵이 강요되었고, 그런 시대상황 속에서 갑갑한 현실을 깨뜨리는 문학을 끊임없이 꿈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저희 세대에게 빚이면서, 교사였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우연찮은 기회에 한국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서와 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시집이나 소설집에만 목매달고 있던 저 같은 문학청년에게는 그게 굉장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신문에 실린 게 84년 1월 1일인데, 비록 실패한 혁명가의 초상이 시에 비장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 당시로는 또 다른 혁명과 변화의 꿈을 꾸던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모양입니다. 광주의 비극을 동학농민혁명의 좌절과 오버랩 시키고 싶은 의도에서 쓴 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십대 무렵에 꿈꾸던 혁명은 다분히 낭만적인 요소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억압과 불평등의 현실을 견디는 유일한 길이었기는 하지만요.

서울로 가는 전봉준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
해진 짚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 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 쉰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 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 자 세 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 우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군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대님을 홀연 풀어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聖上) 계옵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쳐왜쳐화 쳐왜쳐화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문병학 교수님 고향이 경북 예천이지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건너와 자리를 잡는 것도 흔치 않는데, 거기다가 전라북도가 발상지인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으로 등단한 이후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한 시가 더 있지요? 시의 내용과 창작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현

경상도가 고향인 제가 전라도에 살면서 이곳이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를 쓰면서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시인을 꿈꾸던 때였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삼십 대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전적지, 각종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마치 역사를 제 몸에 쟁여두는 심정이었지요. 아래의 시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만경평야의 먼 불빛들

우리의 몸 바깥이 아니라
몸속에 어둠이 있다
그 어둠을 죽이려고 피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 용단을 내려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집집마다 이마에 하나씩 불빛을 다는
만경강 유역에 나가 보라
정겨운 싸움이 있다
영차　　영차
안간힘 쓰고 줄다리기 하는 먼 불빛들
갑오년 동학패들 사발통문 돌리던 그 벌판에
잔혹한 어둠 속에
불빛 아래
노동이 비로소 꿈이 되는 것을 보라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세상 똑부러지게 살다 가야겠다고
그리고 내일까지는 기다리며 있겠다고
살아 꽃피며 수군거리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던 2014년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때 경북지역 기념사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읽다가 내용이 하도 충격적이어서 손으로 가슴을 꽉 누른 채 밖으로 나가 연거푸 담배를 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다름 아니라 교수님 고향 예천군과 인근 상주시 사이에 흐르는 강변에서 갑오년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수님 고향 앞으로 흐르는 게 내성천이지요? 그 내성천 모래밭에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했다는 기록을 읽게된 것입니다. 1894년 9월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이 치열하 게 대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보군이 동학농민군 11명을 생포하였습니다. 당시 전라도는 동학농민군 세력이 강하여 민보군을 압도를 했지만, 안동·예천·상주 등 경북지역은 농민군 못지않게 민보군 세력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민보군에게 농민군 11명이 생포되었는데 민보군이 이들을 산채로 내성천 모래밭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동학농민군이나 민보군 모두 대체로 이 지역에서 살던 이웃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도 잔인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교수님 고향, 내성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혹여 청소년기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어릴 때 내성천에서 멱을 감기도 하셨을 텐데... 세상에나... 그 현장에 1999년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라는 비를 세워놓았습니다. 한날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은 영 내키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산 사람을 파묻을 수 있었는지... 이념이라는 게 뭔지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안도현

아,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 가면 민보군이 쓰던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상주의 동학 근거지는 가봤고요. 동학은 전라도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설명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말 전국 각처 기층 민중들의 분노와 염원을 압축하고 있는 게 동학이지요. 저는 말씀하신 내성천 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성천은 은모래가 전국에서 가장 잘 발달된 곳인데 거기에 동학농민군의 피가 뿌려졌겠군요. 다음에 고향에 가면 그 매장 터에 세워진 비를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병학 이후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일대기를 다룬 산문집 『전봉준』을 펴내셨는데....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서 청소년들에게 녹두장군 전봉준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현 청소년들이 읽는 전봉준 전기인데, 그 책을 쓰면서 전봉준의 일대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의 영웅적인 최고 지도자였지만 저는 농민군 하나하나가 다 전봉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 동학의 흔적들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적다는 게 무엇보다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20여 년 전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에서 일어난 엄연한 현실적 역사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동학을 압살하고 왜곡한 부끄러운 시간들을 너무 오래 쌓아왔습니다.

문병학 1994년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앞둔 1989년부터 전주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되었고, 그 결과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등 전북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1992년 여름에 연합 형태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창립하던 때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국 문단에 발표된 시를 모으는데 힘을 기울여 1993년 가을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시선집(詩選集)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창작과비평사)을 펴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교수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 시집 뒤 부분에 '갑오농민전쟁과 한국현대시'라는 글을 지금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이신 최원식 교수님께서 쓰기도 하셨는데... 시선집 출판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시지요.

안도현 그 무렵 저도 전주에서 100주년기념사업회가 꾸려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성과, 특히 그동안의 시적인 작업들을 모아 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선집을 만들면서 천 명 가까운 시인에게 원고청탁서를 보냈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시

집을 훑어보았지요.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가 250여 편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90여 편을 추려서 엮었습니다. 저는 문학청년 시절에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을 읽으면서 문학과 역사가 어떻게 접점을 찾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은 3.1 운동, 동학농민혁명과 한국전쟁, 그리고 4.19로 건너오는 역사의 물줄기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민중적, 반외세적 시각에서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시선집 작업을 하면서 조운의 「고부 두성산」을 찾아낸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90년대 초 광주의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나온 〈조운문학전집〉에서 발견했는데, 이 시는 동학농민혁명을 그린 최초의 현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처음 실렸던 지면은 1947년에 조선문학가동맹에서 낸 「연간조선시집」입니다.

문병학 흔히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20세기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왜곡 축소되다가 2004년 참여정부 때인 제17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110년 만에 그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예창작학과 교수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지요?

안도현 이제까지 동학을 소재로 한 여러 장르의 예술작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봉준의 일대기가 공영방송의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문은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콘텐츠로서도 동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소재입니다. 2016년 겨울 전 국민이 촛불을 치켜들면서 우리는 정권을 교체했고, 새로운 정부는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먼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인식 그게 역사의식을 갖는 일이지요. 새로운 이 정부에서 다시 찾게 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우리 국민의 정신으로 더 넓게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심풍택의 증손자 심재식

Q 이번 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인터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심풍택의 증손자로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재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심 풍자 택자, 심풍택의 증손자 심재식입니다.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계승·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읍시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정읍지역 유족회원들을 더 많이 발굴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요?

A 제가 어렸을 적에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끔 선산에 오르시며 조상님들 묘소를 정비하실 때 말씀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증조부님이 동학에 참여하셨다가 광주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은 많이 안 해주셔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 좀 더 자세히 증조부님에 대해 여쭤보고 기록해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남아 지금은 많이 후회됩니다. 그때는 조상님들 중에 동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적으로 매도당하던 시기여서 숨기기에 급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동학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경선 장군의 후손인 전(前)정읍지역 유족회 회장 최명언 회장님을 만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 생생한 현장에 대해 여러모로 듣게 되었어요.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들으신 내용은 없는지요?

A 증조부님께서는 손화중 장군과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내며 교분이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손화중 장군은 학식과 지략이 뛰어나 전봉준 장군이 혁명에 참여하기 전 많은 일들에 대해 논의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품이 고결하고 포용력까지 갖췄던 분이라 하니 조부님께서 그 영향을 받아 동학을 접하게 되고 '의(義)'를 함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조부님께서는 동학의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봉준 장군의 혁명론에 공감하여 '의(義)'를 행동으로 옮긴 혁명에 참여하시어 1894년 3월 백산봉기를 시작으로 황토현전투, 장성황룡강전투, 전주성전투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에 용맹하게 참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Q 집안의 어른들이나, 주변 분들께서 증조부님에 대해 하시는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증조부님에 관한 일화가 있거나 혹여 남기신 유품은 없는지요?

A 남기신 유품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조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부분적으로 들었던지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기억 남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굉장히 민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질이 정의롭고 강직하여 옳지 않

은 일은 참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글도 생각도 짧았다고는 하지만 선조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 횃불을 밝히는 위험한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억척스럽게, 정말 어쩌면 무지하게... 해내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그런 일들인데 말이죠.

Q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굴절로 인하여 지난 100년 동안 반란사건으로 왜곡되어왔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의 후손들이 알게 모르게 핍박을 많이 받아온 것을 확인되고 있는데 선생님 집안에는 피해나 고초를 겪었던 일은 없었는지요?

A 증조부님께서 26세에 광주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는 증조할아버지가 사형을 당하시자 자살하셨다고 해요. 고조할머니께서도 증조부님 옥바라지를 하다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지셨다고 합니다. 옥바라지에 남아있는 어린 손주들까지 돌봐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집안을 잘 지켜서 가문을 보존해주신 고모할머니가 우리 집안을 살려 오늘이 있게한 훌륭한 분이시지요.

Q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조부님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은 국권수호를 위해 서울로 진격하던 중 충청도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의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금티전투 이후 간신히 살아남은 심풍택 선생님은 부안의 김여중, 광주의 김형순과 함께 파신했다가 재기하려 했으나, 전남 장성에서 체포되어 광주 감옥에서 옥사(獄死)하셨습니다. 증조부님의 최후에 대해 알고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앞서 말했듯이 증조부님은 손화중 장군을 따르며 여러 지역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신식무기로 무장하여 우금치에서 농민군들이 대패를 하자 증조부님은 장성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옛날 조상 중에 둔재라는 분이 장성에서 살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증조부님은 연고가 있는 장성으로 피신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동지인 부안의 김여중과 광주의 김형순 등과 함께 재봉기를 하려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왜경들에게 체포되어 광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심한 고문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고 해요. 후손으로써 죄송스럽기 한이 없지요.

Q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로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가 결성되며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전공연구자 등이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에 힘입어 2004년[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란사건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졌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제대로 평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참여자 후손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A 이제야 제대로 국민으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45년간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역사책에는 동학농민군을 반란군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인식 또한 동학농민군을 반란군으로 인식하였고, 제대로 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었다."라고 말하면 반란군의 후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 "내 마음이 해방 된 날"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마크를 가슴에 차고 다닙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임원과 회원, 전공연구자 등등 많은 분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의 전국화와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쓰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감사말씀 드립니다.

Q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자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A 가장 바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힘써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족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기념일이 제정되어 국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갑오선열들의 후손들이 현충원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소원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우리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신분도 숨기며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학농민혁명군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동참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기념일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의견을 통합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Q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원도, 홍천·강릉·평창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수부(首府) 전주성을 함락(1894. 4. 27.)하고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에 착수했던 여름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민군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라도에서는 김개남 휘하 농민군 5~6만 명이 남원대회를 열었고, 충청도에서도 농민군이 공주 감영을 점거했다가 물러나 충청감영군과 대치하였다. 경상도에서도 산청과 고성, 울산, 김해, 진해 등 60여 지역에서 봉기하였고, 일본군에 대한 투쟁도 활발해졌다. 경기도에서도 9월초 안성, 죽산, 여주, 광주, 파주 등지에서 농민군이 봉기하였고, 수원과 안성을 점령하기도 했다. 황해도 해주에서는 10월초 동학농민군이 농기하여 해주성을 점령 1개월가량 주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전국에서 반봉건, 반일항쟁이 거세게 타오르던 8월부터 강원도에서도 동학농민군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강릉 관아

▣ 국보 51호
▣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58-1

강릉관아는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점령하여 폐정개혁을 실시했던 장소이다. 현재 국보 제51호로 지정된 객사문 주변으로 관아가 복원되어 있다. 강원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크게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권역은 충청, 경상도 지역과 일정한 연계가 있었던 평창·정선·영월·강릉지역이고, 두 번째 권역은 홍천과 그 주변 지역이다. 1894년 여름 원주·영월·평창·정선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8월 20일경에는 평창의 오덕보가 강릉부 연곡·신리면 등지에서 세력을 결집하여 강릉부를 압박하였다. 이들은 9월 초순 강릉부로 진격하여 9월 4일 강릉부를 점령하였으나 이회원(李會元)이 지주와 이서배 등으로 구성한 민보군에게 야간에 기습을 받고 9월 7일 강릉부에서 밀려나 대관령을 넘어 평창 쪽으로 퇴각하였다.

▲ 복원된 강릉관아 전경

강원도에 동학이 처음 전파된 것은 1863년 12월 10일 수운 최제우 체포 때 함께 붙잡혔던 이경화가 1964년 3월 정배지 영월 소밀원으로 들어와 포교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1869년 3월 양양지역에서 포교하였고, 1871년 영해농민항쟁(이필제난)이 일어나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 조직이 와해되자 영월·정선·인제 등지를 오가며 포교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1880년 5월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1881년 인제 천동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기도 했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에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에서 열린 보은취회 때 관동대접주 이원팔과 200여 명의 원주접 동학교도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강릉 선교장

▣ 중요민속자료 제5호
▣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강릉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을 공격하기 위해 민보군을 조직하고 이들을 지휘했던 이회원의 집이다. 이회원이 살았던 선교장은 갑오년 당시 그 자리에 잘 보존되어 있다. 1703년 건립된 이 건물은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으로 평가·인정되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1965)되었다.

▲ 강릉 선교장 (이희원이 기거하면서 민보군을 조정한 곳)

홍천군, 장야평전적지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산 145-1(전투지)

이곳 장평리는 1894년 10월 21일 홍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차기석 휘하 동학농민군이 맹영재 민보군과 격전을 벌였던 장야평전적지이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사인순(史仁淳) 등 30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솔치재를 넘어 서석으로 후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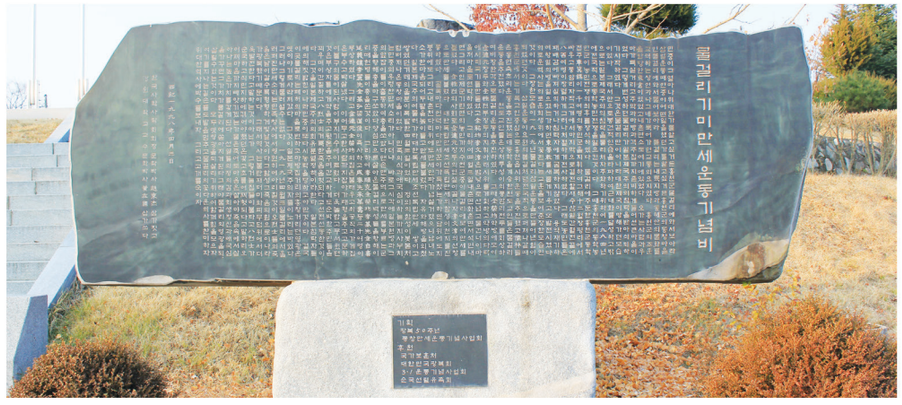
▲ 장야평전적지 (장야평 전투가 벌어진 골짜기 입구)

홍천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1894년 9월부터 활발해졌다. 9월말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등에서 활동하던 차기석(車箕錫) 휘하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홍천군 내면에서 봉기하였다. 10월에는 13일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동창(東倉)을 불태웠고, 강릉부 좌운으로 옮겨 활동하던 농민군이 21일에는 맹영재의 민보군과 장야평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 30여 명이 희생되어 서석으로 후퇴하였고, 10월 22일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다시 전투를 벌였으나 800여 명의 희생자를 내는 등 크게 패하였다. 이후 내면으로 후퇴한 차기석은 양양·간성(干城) 등지에서 농민군과 합세하여 활동을 하다가 11월 11일부터 14일 사이 계방산과 오대산 자락의 자운·홍정·원당리 약수포 등지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의 공격을 받아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활동을 멈추었다.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창(기미만세공원)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91, 594-3, 595

이곳은 9월말 봉기한 차기석 휘하의 동학농민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곳이다. 1991년 조성된 기미만세공원에 '물걸리기미만세운동기념비'(1996) 세워져 있는데 그 비문에 홍천지역 동학농민군 집결한 곳임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물걸리 기미만세운동비 (홍천군 서석면 물걸리)

▲ 동학혁명군위령탑

▲ 동학정 (위령탑 옆에 세워진 정자)

▲ 위령탑 앞 (자작고개 노래비)

동학혁명군위령탑 / 풍암리 자작고개

▣ 강원도 기념물 제25호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11번지

이곳은 1894년 갑오년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큰 전투인 '자작고개전투'가 벌어진 장소이다. 1976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자작고개에 도로를 개설할 때 많은 유해가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이 농민군의 넋을 위무하고자 발견된 유해를 묻고 위령탑(1977)을 건립하였다.
1894년 9월 전라도에서 2차 봉기가 단행되자 강원도에서도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 등지에서 활동하던 차기석(車箕錫)과 박종백(朴鍾伯) 휘하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봉기하여 남하(南下)하려 했다. 이를 맹영재 민보군이 저지하자 동학농민군은 10월 13일 내촌면 물걸리로 들어와 동창(東倉)을 불태우고, 강릉 쪽으로 이동하여 운지(雲地)에 머물렀다. 이후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은 10월 21일 장야평에서 전투를 벌여 사인순(史仁淳) 등 농민군 30여 명이 전사하였고, 22일과 23일에는 자작고개 일대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 전투에서 신식무기로 무장한 맹영재 민보군에게 동학농민군 800여 명이 희생되었다.

평창군 봉평면 사리평전적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767-1, 767-2, 773, 774번지 일대.

이곳은 1894년 10월 말경 동학농민군과 포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보군이 전투를 벌인 곳이다. 9월로 들어서면서 홍천의 차기석 휘하 윤태열이 농민군을 모아 도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본격화하자 강릉부사 이회원(李會源)는 중군(中軍) 출신 이진석(李震錫)에게 농민군을 진압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진석은 관군과 민보군 150명을 지휘하여 10월 22일 봉평에 있는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 지도자 윤태열 등이 체포되고 농민군 7명이 살해당했다.

▲ 사리평전적지 (사리평교에서 바라본 사리평 일대)

평창군 후평리전적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대

이곳은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관군·민보군 연합부대가 전투를 벌인 곳이다. 평창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다른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1894년 여름부터이다. 제천·청주 등지에서 들어온 농민군과 정선·영월지역의 농민군이 합세하여 9월 4일 강릉부를 점령했던 동학농민군은 평창·정선 일대에서 기세를 올렸으나 11월로 접어들어 원주 순영의 중군과 일본군 공격으로 기세가 꺾였으며, 평창지역 동학농민군은 11월 5일 이시모리(石森) 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2개 중대와 2시간이 넘게 전투를 벌였으나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선 쪽으로 후퇴하였다.

▲ 후평리전적지 (평창읍 쪽에서 바라본 후평리 일대)

참고자료

- 표영삼, 『동학·1 –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2004.
-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신서 43,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편, 1995.
- 박맹수, 「최시형 연구」, 주요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사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 『강원도 홍천의 동학농민혁명』, 동학학회 제38차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5.
- 「동비토론」(東匪討論),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4』,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4』,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서석동학농민혁명 추모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_ 2017년 10월 30일(월) 12:00
장 소_ 서석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사무실
대 담_ 심형기 | 서석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회장

심형기
서석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회장

문병학

이번 호 『녹두꽃』 지역대담에는 강원도 서석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석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심형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강원도라서 그런지 10월인데도 벌써 쌀쌀합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를 위해 회장님 자기소개와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심형기

반갑습니다. 이곳 홍천군은 해발 약 350미터로 겨울이 다른 곳보다 조금 일찍 찾아옵니다. 그래서 10월말이면 초겨울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녹두꽃 독자분들게 먼저 인사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서석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형기입니다. 저는 이곳 홍천에서 태어나고 홍천에서 성장한 홍천 토박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서석면의 면장을 지냈고,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석면장과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과 인연을 맺게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2016년부터 추모사업회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서석면에서는 1977년 풍암리 자작고개 전투지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하던 해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학농민군 위령제를 모셔왔습니다. 최근에 추진한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사업으로는 지난 9월 30일 제17회 홍천군 서석면동학문화제를 추진하였고, 10월 23일에는 자작고개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돌아가신 800여 분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추모제례를 엄숙하게 거행하였습니다.

문병학

이곳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단체가 창립되어 활동한 것은 꽤 오래 전 부터였지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서석면에 위령제를 모셔오던 분들을 중심으로 추모사업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석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연혁 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심형기

1894년 10월 22부터 23일 사이에 이곳 자작고개에서 8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976년도에 당시 강원교육대학교에 근무하시던 조동걸 교수께서 자작고개 현장에 대한 오랜 조사와 발굴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임을 확인하여 그 이듬해인 1977년 전투지였던 풍암리 자작고개 마루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하고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여 강원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로부터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과 관심 있는 지역유지 분들을 중심으로 '서석면동학혁명추모사업회'를 구성하여 현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모사업회 역사가 40년이 넘은 셈이지요.

문병학

강원도의 동학농민군 활동지역은 평창, 정선, 영월, 강릉, 삼척, 홍천, 원주, 횡성, 양양, 기린, 간성, 인제, 춘천, 금성, 김화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창, 정선, 영월, 강릉, 삼척, 홍천 등이 중요한 활동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연구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 니다. 강원도지역 특히 회장님 고향인 홍천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동학농민군 장야평전투지가 홍천군 화촌면 장야촌(現 화촌면 장평리)입니다. 이곳에서 맹영재가 이끄는 관군과 싸워 30여명 사상자를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동학농민군이 자작고개 진등에서 이동하여 관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이전투를 자작고개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800여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연이어 관군에게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내면을 거쳐 양양으로 피했고, 결국 양양에서 차기석 대접주도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문병학 강원지역 유적지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성·영월·원주·인제 등지에 있는 동학 2대 최시형 교주의 활동과 관련한 유적지들이고, 두 번째는 갑오년 여름 이후 11월까지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맞아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던 강릉, 정선, 평창 등을 비롯하여 홍천군 서석면 장야평과 물걸리, 자작고개 등의 유적지입니다. 홍천지역 이외에도 강원도 지역에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강릉 관아 터나 강릉 선교장 등도 동학농민혁명 관련하여 중요한 유적지이고, 현재 강릉여자중학교가 들어서 있는 자리는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을 처형했던 곳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심형기 그렇습니다. 문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갑오년 여름 동학농민군이 점령했던 강릉 관아 터, 동학농민군을 처형했던 처형지 등 강원도에 관련 유적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곳에서 멀지않은 곳이 인제군 갑둔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수운 최제우 선생의 동경대전을 해월 최시형 선생이 포교를 하면서 간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지역의 유적지가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단행되자 여기에 합류하기 위하여 봉기했다가 맹영재가 이끄는 관군에게 맞섰던 장야촌에는 현재 아무런 표식하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풍암리 자작고개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세워진 것이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머지 동학농민군 활동지나 전투지 등에 대한 연구조사와 함께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념재단에 간곡하게 청합니다.

문병학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단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반일구국항쟁을 위한 동학농민군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이런 전개과정 속에서 10월 21일 장야평전투, 22일 23일 풍암리 자작고개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 토박이로서 이 전투에 대해 들었던 얘기들을 편안하게 기억을 되살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형기 음력으로 10월 22일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1월 19일이니까 강원도는 추워지는 때지요. 그때 이곳 자작고개에 모인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수천 명이었다고 해요. 당시 관군을 이끌던 지평현감 맹영재가 중앙정부에 "폭도들의 수가 수천여 명이 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관군과 맞서 최후 일전을 벌리다 최소한 800여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석면의 위치가 군사적으로 동쪽으로는 양양군과 평창군, 남으로는 강릉 원주, 서쪽으로는 홍천 서울, 그리고 북쪽으로는 춘천 인제방향의 도로가 한눈에 보이는 능선입니다. 당시 이곳 자작고개에는 밤나무가 자생하는 야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폐와 은폐가 용이했던 요새였고, 인접한 내촌면 동창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어 동학군의 식량 공급처로 활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병학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 풍암리 마을에는 10월 23일 같은 날 30여 호가 제사를 모셨다고 하지요? 한날 제사를 모셨던 그분들이 모두 자작고개전투 때 전사한 동학농민군이었다는 얘기겠지요?

심형기 그렇습니다. 동학농민군에 가담해서 일전을 벌리다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1976년도에 조동걸 교수팀에서 자작고개전투에 대해 조사를 하던 당시만 해도 풍암리에 같은 날 조상님의 제사를 모신 집안이 28가구였습니다. 모두 1894년 10월 22일과 23일 치열하게 벌어진 전투에서 사망한 동학농민군이었지요. 그동안 여러 곳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28가구 중 9가구만이 남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이곳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세워져 있는데 위령탑을 건립하게 된 경위나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위령제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심형기 1976년 당시 춘천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이시던 조동걸 교수께서 갑오실기에 기록된 근거와 구전(口傳)되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달여 동안 이곳에 기거하며 탐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유가족과 주민들을 통해 갑오년에 이곳에서 벌어진 슬픈 역사를 찾아낸 것이지요. 그렇게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학혁명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콩이나 팥, 옥수수 등 곡식을 거두어 내다팔아 그 돈으로 자작고개 전투

지 일대 땅 300평을 매입하였고, 여기에 홍천군비 일부를 지원받아 조그마하게 시멘트로 높이 올리고 그 위에 오석(烏石)을 올렸지요. 그 검은 돌비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문병학 위령탑 건립 이후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지요?

심형기 위령탑은 1977년 12월 3일(음력10.23.)에 건립하였습니다. 건립하던 전해부터 서석면 주변에 사는 분들 등을 대상으로 제삿날을 조사하였는데, 10월 23일이 제삿날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작고개전투에서 돌아가셨지요. 맨 처음 위령제는 위령탑 준공식과 겸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듬해부터 서석면장이 제주(祭主)가 되어 추모제를 올려왔고, 10여 년 전부터 제주를 홍천군수로 격상시켜 매년 추모제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문병학 회장님은 이곳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성장하셨고, 공직에 몸담고 이곳에서 쭈욱 생활하셔서 위령탑 건립이나 추모제례 모시는 일 등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죠? 또한, 어릴 때부터 자작고개전투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심형기 저는 1945년에 이곳 풍암 2리에서 태어나 서석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자작고개가 등하굣길이었는데, 여름 장마철이면 백골과 굵은 뼈와 잔뼈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여덟 살 무렵에 본 이 뼈들은 6.25전쟁 때의 인골이 아닙니다. 백골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릴 적에 보았던 백골은 6.25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것이 아니라 당시로부터 50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군 유골이지요.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1973년 새마을사업으로 자작고개에 신작로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때 다시 유골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주민들이 이곳에 대해 관심이 갖게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작고개에 유골들이 굴러다녀서 밤에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 고개를 잘 넘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문병학 전라도나 충청도는 유적지가 비교적 잘 정비된 곳도 있는데, 강원도는 유적지 정비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전투지 외에 다른 곳 유적지 정비현황은 어떤지요? 강원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형기 강원도 내에 동학관련 유적지 정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서석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자작고개전투지에 위령탑을 세운 게 그나마 다행스럽지요. 강원도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는 강릉이나 평창, 영월, 횡성 등 여러 곳에 동학농민군 활동지와 전투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반일민족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애국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선양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재단에서 강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이 이곳 서석면에서 활기차게 이루어진 것은 홍천군의 자랑거리라는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라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가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강원도 지역의 인식이나 관심이 충청·전라도 지역 주민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강원도 홍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추진에 오랫동안 몸담아오셨는데 이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주십니다.

심형기 동학농민혁명은 그동안 교과서에서도 '동학난'으로 기록되어 국가에 반역한 행위로 가르쳐왔잖아요? 그래서 참여자 후손들조차도 밖으로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쉬쉬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집안은 천민 집안이고, 반란을 일으킨 죄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숨어서 지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학농민혁명은 새롭게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조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2~3대를 넘어 오다보니 서석면에 살던 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 계신 분들은 연로하셔서 기억도 가물거리고...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기념재단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나 지역 어른들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제가 이곳 서석면 면장으로 재직할 때 동학 유가족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작고개전투 때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 제사를 지낼 때 한 밤중에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가정이라고 인식될까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방문에 천을 치고 문을 잠근 후 제사를 모셨다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이밖에도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형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관군이 쏜 총탄에 죽자 동생이 조선낫을 치켜들고 '우리 형을 죽인 놈이 어느 놈이냐!' 고 관아로 쫓아갔다가 동생마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어느 집에서는 갑오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를 이장하던 중 몸에 탄환이 박혀 있어서 그걸 몸에서 빼내고 안장했다는 얘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쫓길 때 관군과 일본군이 무차별적으로 동학도 집안 사람들을 죽이니까 대가 끊어질까 우려해서 참여했던 분이 피신하면서 장손 아이를 곡식을 담아두는 큰 독(항아리)에 넣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타이른 후 산속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니 다행히 아이가 독 안에서 잠이 들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쌀독 이야기' 등 어릴 때 어른들이 해주셨던 얘기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들이지요.

문병학 혹여,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바라는 것 등에 대해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형기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희생된 자작고개전투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역사현장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대에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동안 홍천군, 강원도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해왔으며, 실제로 2008년도에 국가사적지로 신청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대학 교수의 '동학농민군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이유로 이곳을 국가사적지 지정하는 것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수많은 그 동학농민군 유골은 다 뭐란 말입니까? 이런 것이 말 그대로 탁상공론 아닌가요? 갑오년 이후 자작고개에 도로가 확장되는 등 형질이 많이 변경되었으니까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유골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1950년대와 1970년대 이곳에 신작로가 나던 때 풍암 2리(자작고개 뒷마을)에 거주하던 어른들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동학농민군의 유골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고, 그래서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그곳에 위령탑까지 건립하였는데... 몇몇 학자들이 들어와서 며칠 동안 조사해 보고 유골이 없으니 근거가 명확치 않다. 그러니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사적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곳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마땅합니다. 이곳 전투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관청의 기록 등으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잖습니까? 현장에서 유골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에 조사를 서둘러야 할 겁니다.

문병학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관 방문단체

1
2 3

① 10월 13일, 정읍시 수습공무원 연수단 33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여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② 10월 13일, 전주 신동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95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무명농민군위령탑, 동학혁명모의탑 등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③ 10월 14일, (사)경기민예총 문학분과 25명이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보고, 고부와 정읍지역 유적지을 돌아보았다.

기념관 방문단체

4
5 6

④ 10월 24일, 광주 광산구 더불어 노인복지회관 회원 40여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전시실을 관람한 후 고부와 정읍, 부안지역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⑤ 11월 1일, 전국 건설노동조합원 300여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돌아본 후 고부와 정읍지역, 부안지역의 유적지 답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⑥ 11월 2일, 대구 문화재지킴이 회원 82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회원들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답사였다고 말하였다.

기념관 방문단체

7	9
8	10

⑦ 11월 8일,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학생 40여명이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통해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⑧ 11월 10일, 경북 영천시 문화관광해설사 4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본 후 정읍·태인·고부·부안 등지의 유적지를 답사한 이들은 그동안 잘못 인식해온 한국 근대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하였다.

⑨ 11월 16일, 여행을 위한 친목모임단체 구성원 40여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 전시실 관람에 이어 말목장터 등 고부지역 유적지를 돌아본 이들 중 한 명은 "동학농민혁명이 나와 상관없는 먼 옛날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로서 지난 겨울 촛불집회 현장에서 그 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체험 소감을 말했다.

⑩ 11월 16일, 정읍 호남중학교 1,2학년 학생 및 교사 등 300여명 기념관 방문하여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보고 들었던 역사적인 내용의 유물·유적들을 실제로 돌아보니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역사적인 의의와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이들은 기념관을 방문한 후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지역단체 포커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최기중)는 10월 26일(목) 충남 태안군 백화산에 자리한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에서 '제27회 내포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승우 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한상기 태안군수 등 주요 내빈과 태안지역 주민 및 전국 기념사업단체 회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박남식)는 10월 28일 공주 우금치전적지에서 '2017 우금티 추모 제례'를 거행하였다. 이날 제례는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밭두렁〉의 추모공연에 이어 우금치에서 희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제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계계층의 내외 귀빈과 지역주민, 전국 기념사업단체 회원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갑오선열의 넋을 기렸다.

지역단체 포커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수영)는 2017년 11월 4일(토) '제12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 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천도재와 추모공연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내외 귀빈과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 전국 기념사업단체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박석면)은 11월 28일(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농협 2층에서 '무안동학농학농민혁명희생자 위령제 및 무안동학농민혁명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개회식, 추모사, 제례의식, 위령무 순으로 진행되었고, 제2부에서는 목포대학교, 무안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해제중학교 등 4개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아리 학습결과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는 11월 26일(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에 자리한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3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문화예술공연과 추모제례, 범군민 걷기대회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박재완 전북도의회 의원 등 많은 내외 귀빈과 지역 기념사업단체 임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2차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박성묵)는 11월 25일(토) 충남 예산군 관작리에 자리한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1회 내포동학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황선봉 예산군수, 박형 예산군농민회장, 김시운 예산문화원장 등 기념사업단체 회원 및 관계자와 지역주민, 학생 2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관작전투 기념식, 진격로 걷기, 풍물패행진, 신바람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동학의 기본정신과 참뜻을 새겼다.

지역단체 포커스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는 12월 14일(목) 전북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를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농민봉기의 의의'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고부농민봉기가 지닌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고부농민봉기 지도자와 동학 교단과의 관계''사발통문의 연구동향 및 역사적 가치''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활동의 비판적 고찰''동학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헌실적인 대안' 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행사는 김생기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 이기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전해철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장학수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학수 전라북도의회 의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9월 20일(수)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3.1운동 연관성 밝혀져
9월 22일(금)	뉴스1	서산문화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문화유적 현장학습
9월 22일(금)	NEWS1	동학농민혁명 창무극 '천명'…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 공연
9월 22일(금)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전북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9월 22일(금)	한겨레	이이화(역사학자), 녹두장군 동상 서울에 세우면 동학과 촛불의 만남이다.
9월 24일(일)	새전북신문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모금 동참
9월 25일(월)	충청일보	"동학농민혁명 의미 되새겨"
9월 26일(화)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9월 27일(수)	참뉴스	홍천, '2017 서석 동학문화제' 29~30일 개최
9월 27일(수)	영남일보	상주동학축제, 시끄러운 축제 탈피…동학의 근검절약 정신 기리다
9월 27일(수)	머니투데이	한국민종운동사학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10월 01일(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10월 09일(월)	전북일보	내달 4일까지 '삼례봉기에서…'기획전
10월 11일(수)	뉴스피크	수원시, '동학농민혁명 123주년 기념학술대회'13일 연다
10월 12일(목)	동아일보	동학운동 기념일 제정, 지자체 이해관계 뛰어넘어야
10월 13일(금)	뉴시스	이이화 역사학자, 동학 학술대회서 기조강연
10월 13일(금)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어린이·청소년 사생대회 개최
10월 15일(일)	굿데일리	"동학 창시자 최제우, 정조대왕의 사상 영향 받았다"
10월 17일(화)	뉴스1	조배숙 "국민의당 강령에 동학·DJ정신 계승 밝혀야"

보도기사 색인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10월 17일(화)	충남인터넷뉴스	일본군 격파한 '내포동학농민군' 함성이 들리는가
10월 19일(목)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국비로 조성해야"
10월 22일(일)	한국농정신문	충남 당진 승전목에 동학농민군 장승 세워
10월 23일(월)	뉴스1	홍천군,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념식 거행
10월 23일(월)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시립합창단 공연 선보여
10월 26일(목)	국제뉴스	전북도, 2017년 동학농민혁명 주제 생생문화재사업 인기리에 진행 중
10월 28일(토)	오마이뉴스	2017 우금티예술제... "우금티 넘어 평화로"
11월 01일(수)	온양신문	아산지역동학농민혁명군 기포 기념대회
11월 03일(금)	새전북신문	'사람이 하늘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
11월 03일(금)	국제뉴스	전북도, 2017년 동학농민혁명 주제 생생문화재사업 인기리에 진행 중
11월 03일(금)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국비로 조성되야"
11월 06일(월)	네이버뉴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태안에 건립...2020년 개관 목표
11월 07일(화)	노컷뉴스	정읍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열차
11월 08일(수)	새전북신문	남원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외적침략길 불망비 건립
11월 08일(수)	케이랜뉴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새국면
11월 08일(수)	금강일보	태안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주목
11월 08일(수)	노컷뉴스	정읍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열차
11월 13일(월)	전민일보	동학혁명기념공원 정부사업으로 추진될 듯
11월 15일(수)	인천뉴스	종교개혁과 동학혁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11월 16일(목)	충청일보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오늘 국악뮤지컬 '파랑새' 공연
11월 16일(목)	뉴시스	동학농민혁명 고창활동 조명 학술대회
11월 17일(금)	대전투데이	동학농민군 승전지, '승전목' 주목받다
11월 21일(화)	강원일보	[강원포럼] 촛불과 동학의 역사적 만남
11월 26일(일)	뉴스1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제123주년 기념식 열려
11월 26일(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 마라톤대회 열린다
11월 29일(수)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실질 보상가능 해질듯
11월 29일(수)	연합뉴스	'지도로 본 동학농민혁명'특별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서 30일 개막
12월 01일(금)	노컷뉴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월 01일(금)	뉴스1	김생기 정읍시장"새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적극 추진해야"
12월 01일(금)	전북도민일보	"정부의 책임감 있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필요"
12월 02일(토)	국제신문	탁암 심국보의 동학이야기(23)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여성들
12월 03일(일)	새전북뉴스	동학농민혁명특별법 본회의 통과–기념관 조성사업 탄력 예고
12월 04일(월)	전주일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
12월 06일(수)	연합뉴스	'고부 농민봉기 의의는'… 동학농민혁명기념 학술대회 14일 정읍에서 개최
12월 09일(토)	TBS뉴스	[서해성의 박학다설] '우금치 학살'그 후…
12월 11일(월)	뉴스1	유성엽,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청원 소개
12월 17일(일)	뉴스타운	정읍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 개최
12월 18일(월)	브레이크뉴스	정읍 '고부봉기'위상 재정립했다!